



'99 건축문화의 해 THE YEAR OF ARCHITECTURE

'99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현재의 사찰건축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건축은 단순한 건조물이 아니라 그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총체적인 종합 예술품이다. 불교는 불국사 부석사 수석사 등 각 시대마다 견고하면서도 독특하고 찬란한 건축유산을 남겨 시대를 선도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해 왔다.

그러나 지난 70년대부터 일어난 대규모 사찰건축 붐은 IMF가 발생되기 전까지 활발하게 이어졌는데 어설픈 전통건축을 흉내내거나 무조건 크고 조급하게 지어 주위와의 조화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조악한 건물들이 양산돼 뜻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따라서 올해 건축문화의 해를 우리 불교 건축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잘못된 건축불사의 관행은 무엇이고 사찰건축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사찰건축불사 현주소

무조건 크게 짓고 어설픈 전통모방 자연경관 무시

●김기천씨(이도건축 대표)=문화적 정체성에서 비롯된 어설픈 전통흉내내기로 지난 날의 향수에 젖어 과거의 시간속에 안주하려 드는 행위의 나타냄은 이 시대는 물론이고 앞으로 수천년 길이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기존의 전통건축과 문화의 파괴행위에 다름없다. 또 옛날과는 다른 새로운 건축환경인 도시 한가운데에 사찰을 지으면서도 3~4층의 화강석 박스건물위에 지붕은 기와로 덮어안면이 마치 전통불교건축의 자랑스러운 계승이라는 강박관념도 타파되어야 한다. 전통건축의 복제나 어설픈 모방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시대의 불교 건축은 더 이상 건축문화의 발전적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며 이 시대 주체적 문화창달자로서의 기능까지 상실할 수 있다.

●홍운식 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사원은 불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무어에 따라 형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불교건축에는 우리 사회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고 신앙행태와 양상, 시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불교건축

이 예전과 같이 시대를 선도하려면 신앙결사운동과 같은 근본적인 신앙행태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범하스님(통도사 박물관장)=목조가 대부분인 사찰은 무조건 크거나 짓기보다는 목조만의 조형미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보수를 통해 원형을 그대로 살려야 할 때도 비용이 더 든다는 이유로 차라리 새로 짓자는 생각 때문에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닌 목조건축들이 사라져 버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러한 의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김종식 교수(동국대 고고미술사학)=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과거에 지어진 전통불교건축은 최고의 기술자가 동원돼 불교교리에 맞춰 산세와 지형 그리고 주위와의 조화를 고려해 지어진 건축물인데 반해 현대에 지어지는 사찰건축은 기능적인 면만 강조되어 조화미는 없이 무조건 커지는 경향이 있다. 탑의 모양이나 새기는 조각들도 불교교리에 의한 상하개념이 없애져서 형태만을 보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불교교리에 맞아야 한다.

●김봉렬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과거시대처럼 불교건축이 시대를 선도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지승 스님들의 인품이 과거 사찰건축자로서의 스님들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통성을 창조적으로 살리지 못하기에 허울만 전통사찰인 경우가 많고 도심사찰도 도시에 어울리지 못하는 어정쩡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불교건축을 아는 전문설계사에게 의뢰하거나 종단차원에서 스님들을 위한 건축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opia.com)

'건축문화의 해' 이광노 조직위원장

"고건축 전통 계승에 역점"

"일반인들이 건축에 대한 상식을 넓힐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찰건축 등 고(古)건축물에 대한 상식과 중요성 인식은 보존을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관객에 의한 과소과나서 등은 모두 고건축물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가 99년 한 해동안 전개할 사업으로는 △한국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99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장 이광노 서울대 명예교수(71)는 "건축문화의 해 기념 사업 계획을 설명하며 "고건축의 보존과 전통계승을 통한 현대화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새롭게 꾸어 나가는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특히 사찰건축의 관리 부주의로 전통건축들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 사업계획과 관련해 "화재나 총해(鎗害)로 인한 소실, 관

김정은 기자(jekim@buddhopia.com)

태우고 또 태워 한국의 얼굴로 남았다

설봉스님 도자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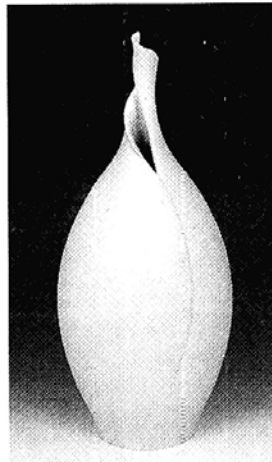
설봉스님(강화도 무애원 주지)의 도자기 전시회가 1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 옆 서울클럽 한라산홀에서 열린다.

'태우고 또 태워 한국의 얼굴로 남았다' 주제로 열리는 이번 도자기전시회에서는 갯벌흙, 흙흙, 마사토, 황토, 소나무재, 죽재 등을 원료로 스님이 유일하게 개발한 유약을 사용한 도자기 1백여 점이 전시된다. 스님이 오랜 인고와 연

구 끝에 개발한 천연유약을 사용한 도자기들은 명주 옥양목 삼베 등에서나 볼 수 있는 자연스럽고 친근한 색깔로 만들어져 마음에 촉촉히 젖어드는 한없이 포근한 백자의 세계를 열고 있다.

설봉스님은 "새로운 재유약을 성공시키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열변 실패하면 열번 일어서는 끈기와 집념으로 작업에 매달렸고 끝내 상식의 틀마저 깨뜨리고 난 후야 재유약의 신비로움에 젖어들 수 있었다"며 "모시나 명주처럼 부드럽고 푸근한 우리 옛 옷감에서 느끼는 색과 감정을 백자에서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02)238-7666

◇갯벌흙, 황토, 소나무재 등을 이용한 천연유약으로 만든 설봉스님의 도자기.



명비고탁전 삼국~고려 금석문

묘향산 보현사비첩등 20여점 첫 공개

예술의 전당 서예관에서는 삼국 시대부터 고려시대 금석문종 회귀 탁본을 모은 '한국의 명비고탁전(名碑古拓展)'을 개최한다.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고탁전에서는 어눌한 서풍의 삼국시대부터 서체가 정형화되고 국제화되는 통일신라, 구양순계통의 서풍이 주도하는 나말여초, 단연을 중심으로 한 왕회지 복고의 고려중기, 조맹부서체가 유입되는 고려말까지 우리나라 1500여년간의 서풍의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한자리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 금석문종 가장 많이 제작된 신라 최고 명필 김생의 '태자삼남공대사백월서운탑비' 6종7점을 비롯, 최치원의 '쌍계사 진감선사대공탑비' 고려시대 조각의 세련미까지 보여주는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 등 모두 20여점이 선보이는데 대부분 불교관련 탑비들이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일연선사의 인각사비 4종도 전시되며 북한 소재 유물로 국내 소장 회귀본인 '묘향산보현사비첩(규장각)' 등 20여점은 처음으로 전시되는 것이다.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명(887년 제작). 최치원이 글을 짓고 구암순체로 쓴 것으로 온아하고도 독특한 필체속에 예술 기상을 느낄 수 있다.

벽응스님 범패CD 발간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기능보유자 장벽응스님(김포 문수사)이 범패 CD를 펴냈다.

김포문화원(원장 유지만)이 벽응스님의 업적을 기려 제작과 출간을 맡은 이번 CD 1집에는 벽응스님 특유의 훑소리, 상주권공 중에서 할함(喝喝), 등개(燈得), 정례(頂禮), 참혼(唱魂)과 지목개, 합장개 벽응스님 목소리로 수록되어 있고 2집에는 상주권공중에서 화청, 화심곡 등이 들어있다.



박범훈교수에게 배우는 전통음악

EBS, 14~28일 방송

TV 프로그램의 배경 음악이 국악으로 편성된다면 우리 음악이 한층 친근하게 다가오게 될 수 있다. EBS-TV가 14일부터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영할 '박범훈의 세계로 가는 우리 음악'(담양PD 강영숙)은 그 가능성이 시험하는 무대다.

국립국악관현악단장인 박범훈 중앙대학교수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생활 속의 국악'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창작 국악, 한·중·일 3국의 전통 음악 등을 소개하며 21세기 우리 음악이 나아갈 방향을 찾는다. 또 오노를 국악 실내악단과 최진숙명창, 개량악기인 22현 가야금 등의 연주도 곁들여진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20분부터 40분간 방영될 '박범훈의...'는 △14일=새로운 시도! 국악의 창작 음악 △21일=한·중·일 음악-아시아의 화음 △28일=대중 속의 국악, 생활화된 국악 순으로 방영된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opia.com)



해외소장 한국문화재 조사보고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정빈)이 해외소재 3만5천여점의 우리 문화재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도록 8권의 마지막권인 일본편을 펴냈다. 재단은 세계 3대 박물관이라는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영국 대영박물관, 프랑스 기메박물관 등에 독립한국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10여년 동안 14개국 1백 10여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조사를 마무리한 재단은 '해외소장 한국문화재 조사사업 결과보고 세미나'를 구립 28일 개최했다. 조사사업에 참가했던 김광연교수(인하대)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현지 전문학자 양성과 유물 구입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덴마크 국립 박물관, 함부르크 민속학 박물관 등 조사되지 않은 곳에 대한 추가 조사와 일본 소장 우리문화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파견 전문 큐레이터 양성도 지적됐다. 김지연 기자

갓바위부처님 캐릭터 사업 대구동구청-경산시 '대립'

기초체로 이름높은 팔공산 갓바위부처님이 대구 동구청에 의해 캐릭터(사진)로 형상화됐으나 경산시가 경산지역 문화재를 도모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산시는 대구 동구청에게 보낸 항의공문에서 갓바위의 소재가 경산시 관할이며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임의로 형상화해 캐릭터로 하는 것은 문화재 보호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대구 동구청은 갓바위 캐릭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



간다는 방침인 반면 갓바위 선본사 스님들도 갓바위 부처님을 회화화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쉬운 불서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口)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7,000원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위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186 / 값 3,500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여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단련시켜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기쁨을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앙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 I. 새벽예불 II. 오분향례 III. 부처님어시어, 크니름 크니름
- IV. 거룩한 사대보살 V. 영산회상의 거룩함
- VI. 불법은 승보가 호지한다 VII. 자타일시성불도

신국판 5,000원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 I. 지성(至誠)으로 살자 II. 불자의 살림살이
- III. 불자의 축원 IV. 불자의 기도
- V. 일체고역을 벗어나는 길 VI.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